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1인 전문가 체제 박물관 운영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mall museums running by one expert by sharing system

이 세 나, 김 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ee se-na, Kim sang-h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전국에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인의 전문가가 박물관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콘텐츠화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모델을 ‘공유’에서 찾고자 한다. ‘공유’는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자원 지원이 가능한 대규모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1인 체제 박물관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체제가 박물관 지식의 전문성을 강조한 경쟁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역과 박물관의 공유 방식은 소통을 기반으로 융·복합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자원과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충당하는 1인 체제 박물관은 자생(自生)이 가능하다.

I. 문제 제기

1. 1인 전문가 체제 박물관의 문제점

박물관은 유물·전시·연구·교육을 기본 요소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장소이다. 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구성 요소별 1인 이상이 다양한 업무를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중·소규모 박물관의 증가, 역사인물을 기념하는 기념관의 증가, 개인 유물 수집가의 사설박물관 설립 등 한국 박물관의 설립 주체가 국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으로까지 분화되면서 박물관의 규모가 점차 중·소형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공립 박물관을 제외한 대다수 박물관은 박물관의 최소 설립 조건인 1인 학예연구사(이하 1인 전문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립 박물관에 비해 운영여건이 나은 지방의 공립 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이상의 전문가로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박물관과 달리 대부분의 1인 전문가 체제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다양한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거나 여러 요소를 성의 없이 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 운영자는 다양한 운영요소들을 콘텐츠화하여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결핍을 느끼게 된다.

2. 협력망 사업의 문제점

한국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협력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국가가 설립한 대규모 박물관에서 중·소규모의 박물관을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협력망 사업의 주체는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의사관 등 대규모 박물관이다.

기존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주체 측에서 박물관의 주요 운영 요소인 유물관리·교육운영·교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력망 사업은 가입 박물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원 주체 박물관과 지원 대상 박물관의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수혜대상 박물관들의 경쟁을 수반하게 된다. 지원 대상 박물관 중 경쟁에서 이긴 박물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되어 예산 등의 일정한 물적 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물적 기반이 미약한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에서는 다수의 경쟁 사업에 지원하여 그 수혜를 바탕으로 박물관 운영을 지탱해 나가기도 한다. 이 때 박물관 운영자는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업무에 전문성을 소진하게 된다.

또한 협력망 사업의 일부 모델은 큰 규모의 박물관 여건에 맞추어 개발되어 있거나 성공리에 수행한 프로그램이 복제된 것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박물관은 목표와 기준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박물관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게 되고 결핍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 대상 박물관의 관람객 또는 교육 대상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II. 공유 시스템

1. 특징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일반관람객의 문화향유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취향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에서 유물·전시·연구·교육이 조화롭게 운영되어 관람객이 만족하고 활성화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1인 체제 박물관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운영되어 자생(自生)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과의 '공유'에서 찾고자 한다.

2. 구성 요소

2.1 박물관 자원의 공유

공유는 1인 체제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박물관의 소통을 통한 관계에서 시작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박물관이 등록되기 위한 최소요건은 1인 이상의 학예연구사, 50점 이상의 관련 유물, 100㎡이상의 전시실이다. 이는 1인 체제 박물관이 지닌 핵심 자원이기도 하다. 특히 박물관의 여유 공간과 박물관 휴관일은 공유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지역에 먼저 제공한다면 그 박물관은 지역주민에게 서서히 다가갈 수 있다.

2.2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지역에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교육자, 사회복지사, 예술가, 작가, 향토사학자, 지역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의 전문가 집단과 박물관 전문가는 '지역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박물관 전문가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이뤄야 한다. 지역 전문가와 박물관 전문가의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핵심 파트너십은 박물관과 지역의 공유가 탄탄해지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2.3 인적 자원의 활용

박물관의 인적 자원은 박물관 관계자,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및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에 대한 지분의를 가지며 전시나 연구 자료의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한다. 이들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라는 목표에 쉽게 동조하고 박물관의 설립에 도움을 주거나 유물을 기증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은 박물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박물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가장 쉽게 바뀌는 그룹이다.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 박물관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3. 효과

박물관 자원의 대여와 파트너십을 활용한 지역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자원을 지역에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방면에서의 공유 활동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박물관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구체화 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리고 박물관의 공공성 또한 충족하게 된다. 이처럼 공유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의 운영 시스템은 기존의 가치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게 된다.

4. 활용

재원과 인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1인 전문가 체제 박물관은 자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자원의 공유에 성공하여 자생한 개별 박물관들이 서로 연계하는 단위의 공유 모델 체제도 구성 가능하다.

자생에 성공한 독자적인 박물관들이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유물·교육·축제·투어프로그램 운영, 워크샵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각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자료화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공유한다면 다양한 대중에게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박물관 공유모델은 자생이 가능한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을 전시·유물·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통섭과 화합이 가능한 단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자생 박물관들의 공유는 기존 박물관 협력 사업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넘어, 지원을 위한 경쟁의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가졌던 결핍감을 극복하게 한다.

1인 전문가 체제 박물관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은 지역과의 공유를 통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박물관 산업에 소통을 통한 융·복합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문화산업의 다양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이언 F. 맥닐리·리사 울버턴, 채세진 역, 지식의 재탄생 공간으로 보는 지식의 역사, 2009, 살림.
- [2] 알렉산더 오스터왈더·에스 피그누어, 유효상 역, 비즈니스모델의 탄생, 타임비즈, 2011.
- [3] 노수동, 파트너십으로서의 박물관 학교연계교육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물관미술관교육 전공 석사논문, 2013.